

독주

이승훈 빙속 1만m·팀추월서 **金 '3관왕'**
오늘 매스스타트서 사상 첫 4관왕 도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대표팀 이승훈(대한항공)이 동계아시안게임 2연속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이승훈은 22일 일본 홋카이도 현 오비히로 오벌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0m와 팀추월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을 확보했다. 그는 20일 남자 5000m에서도 우승했다. 이승훈은 2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매스스타트에 출전할 계획인데, 이 종목에서 우승할 경우 우리나라 선수로는 동계아시안게임 사상 첫 4관왕에 오른다. 이승훈은 이 종목 세계랭킹 1위를 달리고 있어 우승이 매우 유력하다. 당초 이승훈은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도 불투명했다. 10일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 팀 추월 경기 중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를 베이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는 8바늘을 꿰매는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승훈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대표팀 후배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출전을 강행했다. 부상을 입고 일어난 이승훈은 당당히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고, 대표팀 후배인 주형준, 김민석에게도 금메달을 안겼다. 이승훈은 팀추월에서 3바퀴 이상 선두에서 서며 대표팀을 이끌었다. 10000m를 뚫고 불과 2시간 만에 출전한 경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다. 이승훈은 23일 도전에 나선다. 한편 이승훈은 지난 2011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에서 5000m와 10000m, 매스스타트에서 우승하며 3관왕에 올랐다. 당시 팀 추월에선 이규혁(은퇴), 모태범(대한항공)과 출전했는데, 아시안게임 최고 기록을 세운 일본 대표팀(3분49초18)에 불과 0.03초를 뒤져 은메달을 획득해 어렵게 4관왕을 놓쳤다. /연합뉴스



22일 일본 홋카이도현 오비히로 오벌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확정짓고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훈, 주형준, 김민석. /연합뉴스

설욕

김보름, 빙속 3천m·팀추월 **日**에 막혀 2위...5천m선 **金**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장거리 간판 김보름(강원도청)이 아시안게임 50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보름(강원도청)은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의 목표를 개인 장거리 종목 우승으로 삼았다. 김보름이 주 종목인 매스스타트 대신 일반 종목에 심혈을 기울인 까닭은 간단했다. 장거리 종목 아시아권 최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였다. 그는 대회를 앞두고 "여러 선수가 경쟁하는 매스스타트는 세계대회와 아시안게임 대회의 경기 흐름이 다르다. 아시안게임에서는 매스스타트보다 장거리 종목에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대비 훈련에서도 매스스타트보다 장거리 종목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초반 스타트와 직선 주로 주파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약점을 배우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레이스 운영 능력과 막판 스피드 훈련을 집중하며 아시안게임 메달 전망을 밝혔다. 몸 상태도 좋았다. 그는 지난 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3000m에서 4분3초85의 기

록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당시 6위에 그쳤지만, 세계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보름은 아시안게임에서 번번이 일본의 벽에 부딪혔다. 그는 20일 열린 여자 3000m에서 4분7초80의 기록으로 일본 다카기 미호(4분5초75)에게 금메달을 양보했다. 21일 여자 팀 추월에서도 일본 대표팀에 무릎을 꿇었다. 은메달만 2개를 획득한 김보름은 "5,000m 만큼은 설욕전을 펼치겠다"며 이를 갈았다. 강한 승리욕을 내비쳤던 김보름은 22일 일본 홋카이도현 오비히로 오벌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0m에서 7분12초58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끊었다. 일본 장거리 강자 타바타 마키는 김보름을 의식한 듯 경기 초반 무리를 하다 1800m 구간 이후 속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4위에 머물렀다. 김보름의 도전은 계속된다. 그는 23일 마지막 종목인 여자 매스스타트에 출전한다. 매스스타트 세계랭킹 1위인 김보름의 대회 2관왕 등극 가능성은 매우 크다. /연합뉴스



22일 일본 홋카이도현 오비히로 오벌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0m에서 김보름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

쇼트트랙 **女**계주·**男** 1천m 등 **金** 8개 중 5개 휩쓸어...최민정·심석희 2관왕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3000m 계주에서 우승했다. 최민정(성남시청)과 심석희(한국체대)는 기분 좋은 2관왕에 올랐다. 여자 대표팀은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마코마이 실내링크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10초515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중국은 4분10초980으로 은메달을 가져갔다. 이번 금메달로 1500m와 10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냈던 최민정과 심석희는 나란히 2관왕의 기쁨을 맛봤다. 특히 최민정과 심석희는 한국 여자 선수로는 14년 만에 나란히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종목에서 2관왕에 올랐

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1999년 강원 대회에서 김은미(1500m·계주)와 김문정(3000m·계주)이 나란히 2관왕에 올랐고 2003년 아오모리 대회에서 최은경(1500m·계주)이 2관왕을 차지했다. 그 뒤를 심석희와 최민정이 14년 만에 이었다. 최민정, 심석희, 노도희(한체대), 김지우(화정고)가 출전한 한국은 레이스 초반 선두로 나서다 5바퀴를 남기고 중국에 선두를 내줬다. 하지만, 마지막 주자인 최민정이 역전하며 우승을 완성했다. 이날 하루만 금메달 3개를 확보한 한국 남녀 대표팀은 쇼트트랙 종목에 걸린 총 8개 금메달 가운데 5개를 휩쓸면서 아시아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서이라(화성시청)가 '부상 불운'을 씻어내고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서이라는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마코마이 실내링크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4초06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번 우승으로 서이라는 자신의 동계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의 기쁨을 누리면서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에 4번째 금메달을 선물했다. 함께 출전한 신다운(서울시청)이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정수(고양시청)는 3위를 차지했지만 한 나라가 메달을 모두 가져가지 못한 것은 규정에 따라 동메달을 양보하게 됐다. /연합뉴스

운동할 팀 없어 유학 가게 해야겠습니까?

화순초 출신 임가을, 스키 타려 강원도행...체전 2관왕
체육계, 꿈나무 발굴·육성 정책 등 총체적 검토 필요



부분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린 화순초교 선수들도 몇년 뒤 임가을과 비슷한 사례를 겪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다.

운동할 팀을 찾지 못해 강원도로 옮겨간 여중생이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실효성을 높일 꿈나무 운동 선수발굴·육성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임가을(여·16·강원 대관령중 3년·사친)은 최근 폐막한 제 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2관왕에 오르며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클래식 5km 부분의 경우 19분 10초 5의 기록으로 시상대 맨 위에 올랐고 같은 학교 동료·후배들과 짝을 이뤄 출전한 15k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가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크로스컨트리 복합에 출전, 은메달을 따고 프리 7.5km 부분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직장 탓에 광주·전남을 떠날 수 없는 부모와 떨어져 어린 나이에 연고가

전혀 없는 곳에서 홀로 하숙하며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체육계 평가다. 임가을은 스키·육상을 함께 하던 화순초 6학년 때 제 95회 동계체육대회에 출전, 스키 크로스컨트리 부문 메달 4개(금메달 1, 은메달 2,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임가을은 그러나 중학교 스키팀을 찾지 못해 체육중에 다니며 육상을 하다 3학년 때 스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강원도로 옮겨오고 곧바로 실력을 드러냈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당국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대로라면 올 해 열린 제 98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스키 크로스컨트리

꿈나무 선수들이 중·고등학교 스포츠팀이 없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겠다는 취지 선수 스카우트하는 체육 정책과 선수 확보와 팀 운영 등으로 운동부를 제대로 꾸리지 못했던 현실 등을 고려한 선수 육성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체육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지우기자 dok2000@